‘부산연등축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월 22일 ‘전통등강습회’ 개최
4월 9일 완성품 특별 전시회
4월 28일 부산연등축제 개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는 2월 22일 ‘부산연등축제 전통등강습회’를 개최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가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부산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부산불교연합회는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서구 닥밭골한지체험관에서 ‘부산연등축제 전통등 강습회’를 개최하고 2023년 ‘부산연등축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강습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수 스님을 비롯해 부총장 동암 스님, 대각 스님, 법안 스님, 영준국원, 여공 스님 등 부산불교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참여했으며, 부산지역 사찰 및 단체에서 신청한 강습생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3일 동안 진행된 강습회에서 전통방식으로 한지와 아교풀, 대나무를 이용해 전통등을 제작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골조를 만들고 배접을 한 이후 종이를 오려 붙여 등을 꾸몄다. 참가자들은 팔모등, 연꽃등, 자유등 3가지 종류로 등을 제작하고, 완성품은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미로전시관에서 특별전시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전통등 강습 지도는 박봉덕 닥밭골한지체험관 관장이 담당했다. 박봉덕 관장은 2020년 공예명장으로 선정된 전통한지 닥종이 장인이다. 24년 동안 닥종이 공예 발전과 한지의 우수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10여 년 동안 부산불교연합회가 주관하는 팔관회에서 시민들에게 사찰풍경과 승가의 일상을 담은 닥종이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범어사를 재현한 작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사무총장 범수 스님은 “부산연등축제는 전통문화계승과 발전을 위한 행사”라며 “부처님의 나투심을 찬탄하는 축제의 대미가 바로 장엄등이며, 등은 빛으로 어두운 거리를 환하게 밝혀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알리는 상징이 된다. 오늘 강습회는 단순히 전통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전통문화를 보전하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통등강습회는 2567부산연등축제가 시작됐음을 알렸으며,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미로전시관에서 전통등과 불교사진전 지화 작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이 열리며, 4월 28일에는 송상현광장에서 개막점등식,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부산연등문화제가 열린다. 부산연등문화제는 대형장엄등 전시와 다양한 문화행사로 진행되며, 부산연등회(연등행렬)은 5월 13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리며, 느티떡 나누기, 영산재, 호기놀이, 연등행렬 등 다채로운 행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번 해 부산연등축제는 힘겹고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예년과 같은 흥겹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교수불자聯 신임회장에 권성열 교수



“함께 공부하고 정진하며 봉사에 앞장서는 불자 교수들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월 28일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권성열 교수<사진>는 “부산교수불자연합회는 수행 정진과 봉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권성열 교수는 현재 국립 부경대에서 전기공학을 연구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부경대학교 불교교수회에 가입해 수행을 이어온 불자이며, 경북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프랑스 리모주(Limoges)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8년도에는 미국 스포 타임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됐으며, 전기·에너지 분야에서는 권위자로 불리고 있다.

권 교수는 “불교교수회에서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불자님들을 만나고 그 인연에게 배운 것들은 보배와도 같다”며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마음공부를 한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매일 한편의 법문을 듣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 교수는 대학생을 위한 포교활동을 이어 갈 것을 밝혔다. 권 교수는 “부산교수불자연합회는 대학생들에게 앞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전임 회장인 장상목 교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불사와 행사들로 성과를 보여주셨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노력을 이어 불국토를 이루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거제불교사암聯, 자비의 쌀 전달

백미 10kg 800포 거제시에



거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선암)가 2월 21일 거제시청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거제불교사연합회는 이날 백미 10kg 800포(2160만 원 상당)를 거제시청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거제불교사암연합회장 선암 스님(계룡사), 대원사 종문 스님, 금강사 성원 스님, 신광사 선안 스님, 일운지역아동센터장 명은 스님, 총명사 호석 스님, 영은사 학산 스님, 해인정사 자원 스님, 박종우 거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달한 백미는 거제시 무료급식소 3곳과 지역아동센터 11곳을 비롯해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복지시설(28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장 선암 스님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거제불교사암연합회가 발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쌀 나눔을 하게 되었다”며 “거제불교사암연합회는 거제시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찰 86곳이 가입해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혜원정사, 해수관음보살 점안식 봉행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증명
높이 9m 경북 영주석으로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가 2월 16일 경내에서 ‘해수관음보살 점안식 및 진신사리 봉안식’을 봉행했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증명으로 점안식이 봉행됐으며 주지 원허 스님과 서보석 혜원정사 신도회장, 주석수 연제구청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진신사리 이운식을 시작으로 점안식, 삼귀의, 보현행원, 내빈헌화, 헌다, 축가, 감사패 전달, 축사, 주지 스님 인사말 순으로 이어졌다.

해수관음보살은 높이 9m에 경북 영주석으로 조성됐으며 하단 복장에는 묘허 스님께 전달 받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됐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고산 큰 스님은 살아 생전 관음 기도를 많이 하셨다. 고산 스님의 기도원력이 혜원정사 주지 스님과 신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이어지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혜원정사가 부산 도심 포교의 중심처가 되고 기도도량으로 많은 불자들의 쉼터가 될것이라 믿고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원허 스님은 “신도님들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바라는 일을 성취하고 기쁜 일이 많기를 바란다”며 “은사 스님인 고산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불사를 원만 회향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인사, 제2기 불교대학 입학식 봉행



창원 정인사(주지 원행)가 2월 21일 경내 교육관 2층에서 ‘제2회 불교대학 입학식’을 봉행했다.

입학식에는 정인사 주지 원행 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원여 스님, 원인 스님, 원담 스님, 일진 스님, 일운 스님, 일휴 스님, 일거 스님, 일맥 스님, 노경숙 신도회장, 박영원 금강복지회관 관장, 김미란 입학생 대표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입학식은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입학선서, 환영사, 격려사, 교수진 소개 및 학사일정 안내, 사홍서원, 폐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원행 스님은 환영사에서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관점에 따라 모습이 변한다. 즉 삶의 설정을 바르게 설정하였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의 표준을 세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아 마음 법을 배워가는 곳이 불교대학”이라며 “불교대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배우는 곳이며 수행실천하는 도량이다.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서 행복하고 보현행자의 서원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인사 불교대학 강좌는 불교개설, 신명심, 증도가, 반야사상, 불교입문, 부처님 생애, 숫타니파타, 법구경, 법화경, 금강경 등이며 진휴 스님, 일진 스님, 일운 스님, 일휴 스님, 일규 스님이 강의한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두 시간 동안 진행되며 졸업식은 12월 26일이다. 지난해 1기는 150명이 입학해 101명이 졸업했으며, 2기는 총 95명이 입학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천만사, 에티오피아 청년에 감사장

이태원 참사 현장서 구조 활동



울산 천만사(주지 향덕)가 2월 17일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친 에티오피아 청년 왁제라 개메출 구타에게 감사장과 금일봉을 전달했다.

향덕 스님은 “서울 이태원 참사 당시 에티오피아 청년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친 희생정신이 대단하다”며 “그 용기와 노력에 우리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향덕 스님은 이날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의약품(1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공룡 나라 고성으로 오세요

윤달 3사 순례 | 옥천사 · 문수암 · 운흥사

옥천사

- 명부전 유서쓰기(입관체험)
- 법성게 · 보현행원품 사경
- 마음약방 체험
- ‘불효자’ 영화관람
- 마가 스님의 명상 법문
- 점심공양 가능
- 치유의 약수 ‘옥샘’



주소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문의 055)672-0100 www.okcheonsa.or.kr

문수암



- 바위 속 문수보살 친견
- 탁 트인 한려해상 조망

주소 경남 고성군 상리면 무선2길 808 문의 055) 672-8078

약사전



- 높이13m 약사여래대불

전화 055)673-8205

운흥사



-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주둔지
- 소원등을 밝히고 타종 체험

주소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248-28
문의 055)835-8656 www.unheungsa.net